

## 국내 입양아동의 입양됨에 대한 인식 연구\*

최 윤 선<sup>1)</sup>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안 재 진<sup>2)</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변 미 회<sup>3)</sup>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부

권 지 성<sup>4)</sup>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국내 입양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을 파악하고, 관련 변인들을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 입양 공개범위, 입양관련 의사소통의 개방성을 중심으로 탐색해봄으로써, 국내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의의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종단연구’에서 수집한 2010년 3차년도 조사 자료 중에서 학령기 입양아동 9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양아동은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입양관련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양 공개범위와 입양관련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중다회귀분석 결과, 아동이 자신의 입양사실을 주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공개할수록, 그리고 부모와 입양관련 대화를 개방적으로 자주 나눌수록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양아동이 입양인으로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돕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요어 : 입양관련 인식, 입양아동, 입양공개, 입양관련 의사소통

---

\* 이 연구는 2010년 한국입양홍보회의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입양홍보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입양가족, 특히 입양아동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1) 주저자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2)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조교수 (E-mail : lemures76@hanmail.net)

3)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부, 부교수

4)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며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친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자녀를 양육·보호할 능력이 없어 아동이 친부모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입양은 이와 같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제공해 줌으로써, 출생 이후의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원한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Kadusín, 1980).

2010년 기준, 입양에 배치된 아동은 전체 요보호아동의 약 28.8%에 달하는 반면에, 국내 입양된 아동의 비율은 17.0%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0). 정부는 이와 같은 국내 입양의 실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가족에 대한 입양수수료 지원, 자녀 양육수당 지급, 입양휴가제 실시,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완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 및 대책들을 꾸준히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정책적, 실천적 노력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양아동이 입양가족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입양아동, 입양부모를 포함한 입양가족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 발달과 적응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국내 입양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입양정책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대다수이며,

공개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도 대부분 입양부모의 입양관련 만족도, 인식, 욕구, 입양공개 경험, 가족기능 등을 조사한 것이다. 반면에 국내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조민혜(2009)의 연구와 국내 공개입양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 및 관련변인을 입양아동의 특성(안재진, 2002)과 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간 의사소통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박미정, 2009), 그리고 국내 공개입양 아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결과들(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2008; 변미희, 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07; 변미희, 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09;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09;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10; 최운선,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2008)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다.

입양의 중요한 당사자인 입양아동이 앞으로 입양인으로서 자아정체감과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기부터 자신의 입양됨을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입양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의미하는 바를 탐색하고 경험하며, 표현할 기회를 얻지 못한 아동일수록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다룰 준비를 잘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입양아동의 입양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관련 변인들을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 입양 공개범위, 입양관련 의사소통 수준을 중심으로 탐색해봄으로써, 국내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아동의 입양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입양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입양 공개범위와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이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이론적 배경

### 아동기의 입양관련 인식의 발달적 변화

아동기에는 자아개념, 사회인지, 논리적 사고, 자기중심성의 탈피, 조망수용 능력 등을 비롯한 중요한 발달적 성과들이 이루어진다. 우선, 아동기의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면서, 자신이 독특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분리된 실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아동의 자기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변화·발달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초기까지는 자신이 가진 개인적 특성이나 소유물, 좋아하는 놀이활동, 능력과 관련시켜 자신을 규정하는 반면에 아동기 말이 되면 심리적 특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자신을 묘사한다(정옥분, 2011).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은 자신을 묘사하는데 다양한 범주를 사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의 묘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나타낸다(연진영, 김선애, 1991).

한편 아동기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 입양아동이 자신의 입양됨을 바라보는 방식에 주요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다(Brodzinsky, Singer, & Braff, 1984). 6세 혹은 7세가 되면, 아동은 가족을 형성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입양과 출산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입양된다는 것은 길러주는 부모와 다른 친생부모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세트의 부모 즉, 임신하고 자신을 낳은 부모와 길러준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아동 초기 입양과 출산을 구분하는 이와 같은 능력은 아동 중기로 들어서면서 입양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8~11세 사이의 아동들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며, 입양의 이해수준 또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하지만 입양관련 지식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 논리적 사고력이 갈수록 발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학급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동은 처음으로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 즉, 아동은 친생부모가 자신을 돌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을 추론해보고,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선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둘러싼 궁금증과 혼란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이제 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친생부모가 그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제 그들은 입양을 통해 가족을 얻은 동시에, 다른 하나의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Brodzinsky, Smith, & Brodzinsky, 2004).

아동이 입양사실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해능력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발생하면서,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된다(Brodzinsky, Schechter, & Henig, 1992). 우선, 입양아동은 자신의 입양됨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상실감, 슬픔과 애도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상실감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친생부모와 친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감정이며, 슬픔은 상실감에 뒤따라 발생하는 감정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상실의 경험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슬픔은 입양이라는 사건에 의해 감춰질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심리적인 고통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슬픔에 대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양아동은 자신의 정체감에 입양인으로서의 자아를 통합시켜야 하는데, 출생배경이나 유전적 정보 등을 모를 경우에는 무엇인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며 불완전한 존재로 볼 수 있다. “내 친부모는 누구일까?”, “그들은 나를 왜 낳았을까?”, “실수로 나를 낳은 걸까?” 등 이러한 궁금증은 비입양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며 그러한 고민이 해결되지 못할 때 긍정적인 정체감 형성은 어려워진다. 결국 이러한 “결핍”의 느낌은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뿌리찾기를 시도하게 만들기도 한다(이미선, 2008).

### 입양 공개범위와 입양관련 인식

외국의 경우, 입양의 공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래전부터 논쟁이 이루어져

왔으며, 일부 연구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개방입양<sup>1)</sup>은 입양아동으로 하여금 입양과 관련된 비밀성과 익명성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친생부모 및 자신이 포기된 상황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공감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경우, 아동은 입양을 덜 거부적인 것으로 경험하고, 자신이 두 가족과 연결된 상황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며, 보다 안정된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더 적은 적응문제를 가질 것으로 본다(Baran & Pannor, 1993; Chapman, Dornier, Silber, & Winterberg, 1987). 심지어 일부 연구자들은 개방입양 가정에서 살게 되면, 입양에 대해 더 빨리,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ilber & Dornier, 1990).

반면에 개방입양의 반대자들은 아동들이 더 큰 혼란과 두려움을 보일 수 있으며, 입양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더욱 심각한 정체성 문제와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Byrd, 1988; Kraft, Palombo, Woods, Schmidt, & Tucker, 1985). 한편 Grotevant와 McRoy(1998)를 비롯한 일부 연구에서는 개방성의 수준에 따라 아동의 적응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개방입양(open adoption)은 입양의 세 당사자인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생부모가 입양 이후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개방입양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개방입양보다 ‘공개입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이는 친생부모의 존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입양사실을 입양아동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수준을 말한다.

###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과 아동의 입양 관련 인식

입양관련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아동의 입양 관련 인식간의 관계를 직접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에서는 박미정 (2009)의 연구가 유일하게 입양관련 의사소통과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았는데, 이 연구에서, 입양모-자녀 간의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불안·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ein과 Hoopes (1985)가 실시한 종단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하는 입양가족일수록 십대들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양관련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집단이 입양관련 대화를 가끔 하는 집단과 폐쇄적인 집단에 비해 자아정체감 및 자아상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입양과 관련된 주제를 입양부모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입양아동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도 차이가 있었다(Feast & Howe, 2003). 즉, 입양사실을 어렸을 때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알려주었을 경우, 아동이 입양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정 내에서 입양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경험하는 아동들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평가하는 적응상의 어려움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입양과 관련된 주제 및 아동과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방어적이지 않으며, 정

서적으로 적절히 반응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입양아동의 발달결과를 예측하는 유력한 요인으로서(Brodzinsky, 2005), 입양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lobodnik, 1996). 따라서 입양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아동이 입양가정에 심리·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박인선, 1994; 이미선, 2002; Melina, 1998).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의의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종단연구’의 2010년 3차년도 조사 자료 중에서 95명의 학령기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답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는 2010년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서울·경인지역, 충청남북도 및 대전지역, 전라남북도 및 광주지역, 경상남북도 및 대구, 부산지역으로 나누어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 아동학을 전공하는 조사원들이 직접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입양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아가 35명(36.8%), 여아가 60명(63.2%)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았다. 입양아동의 연령은 최소 만 6세에서 최대 만 12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7세가 24.2%, 8세가 23.2%로 상당수가 7세와 8세에 분포되어 있었다. 아동의 입양당시 연령은 1세 미만이 74.7%, 1~2세

미만이 10.5%를 차지하며, 아동을 입양 당시 월령에 따라 생후 12개월 내에 입양된 영아입양 집단과 12개월 이후 입양된 연장아입양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영아입양 집단이 71명(74.7%), 연장아입양 집단이 24명(25.3%)이었다.

표 1. 입양아동의 일반적 특성

| 변인            |         | 빈도 | 백분율  |
|---------------|---------|----|------|
| 성별            | 남       | 35 | 36.8 |
|               | 여       | 60 | 63.2 |
| 연령            | 6세      | 6  | 6.3  |
|               | 7세      | 23 | 24.2 |
|               | 8세      | 22 | 23.2 |
|               | 9세      | 7  | 7.4  |
|               | 10세     | 17 | 17.9 |
|               | 11세     | 14 | 14.7 |
|               | 12세     | 6  | 6.3  |
| 입양 당시 연령      | 1세 미만   | 71 | 74.7 |
|               | 1~2세 미만 | 10 | 10.5 |
|               | 2~3세 미만 | 5  | 5.3  |
|               | 3~4세 미만 | 4  | 4.2  |
|               | 4세 이상   | 5  | 5.3  |
| 연장아 여부        | 영아입양    | 71 | 74.7 |
|               | 연장아 입양  | 24 | 25.3 |
| 입양 유형         | 유자녀     | 58 | 61.1 |
|               | 불임      | 37 | 38.9 |
| 다른 입양 형제자매 유무 | 유       | 69 | 72.6 |
|               | 무       | 26 | 27.4 |
| 거주 지역         | 서울      | 23 | 24.2 |
|               | 경기/인천   | 39 | 41.1 |
|               | 충청/대전   | 7  | 7.4  |
|               | 전라/광주   | 18 | 18.9 |
|               | 경상/대구   | 8  | 8.4  |

입양유형은 친생자가 있으면서도 자녀를 입양한 유자녀입양이 61.1%, 불임이 38.9%로 유자녀입양이 월등히 높았다. 그리고 다른 입양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69명(72.6%)인 반면에 없는 경우가 26명(27.4%)에 불과하였다. 입양 아동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인천 지역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24.2%, 전라/광주 18.9%, 경상/대구 8.4% 순이었고, 충청/대전 지역이 7.4%로 가장 적었다.

## 2. 조사도구

### 입양관련 인식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은 연구진이 개발한 11개 문항을 조사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는 .725로 나타났다으며, 초기 고유값은 1.0 이상이고, 누적 분산이 56.92%를 차지하며, 요인 부하량이 .50 이상인 단일요인으로 묶이는 5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최종문항은 ‘나는 내가 입양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다’, ‘입양되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크면 입양을 하고 싶다’, ‘다른 입양된 친구(형, 언니, 동생)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이다. 문항의 내용이 모두 긍정적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alpha$ )은 .719로 나타났다.

### 입양사실 공개범위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공개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개입양가족의 아동들이다. 따라서 개인마다 공개범위에 차이가 있겠지만 입양부모에 의해 아동의 입양사실이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개수준은 입양아동이 인지하는 자신의 입양사실 공개범위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입양사실 공개범위는 입양아동이 자신의 입양사실을 친구들에게 공개하는 범위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음’=1점, ‘예전엔 얘기했지만 더 이상 하지 않음’=2점, ‘친한 친구들에게만 이야기함’=3점, ‘친구들에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함’=4점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입양사실 공개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

입양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은 Barnes and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인 PACI(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를 박미정(2009)이 만 6세 이상 입양아동의 입양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을 질문하는 문항들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박미정(2009)의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 요인의 변량비율을 말하는 초기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이 1개로, 누적 분산은 64.62%로 나타났으며, 표준형성 적절

성의 KMO 측도는 .652로, 요인 부하값은 모두 .81이상으로 나타났다.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 척도의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5점으로 되어 있다.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 문항은 총 6문항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들을 역코딩했을 때, 전체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은 .643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방법

본 조사의 모든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PASW) 15.0 및 18.0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 아동의 개인적 특성 및 입양관련 인식 수준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공개입양 범위와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이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입양아동의 입양관련 인식 수준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5점~20점 점수 범위 가운데 평균 14.14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당 평균은 4점 척도 가운데 2.82점으로,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입양아동의 입양관련 인식 수준

| 변인      | 사례수 | 문항수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입양관련 인식 | 95  | 5   | 5.00 | 20.00 | 14.14 | 3.77 |

## 2.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입양관련 인식 차이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입양관련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학년 입양아동들이 고학년에 비해 입양관련 인식에서 평균 점수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장아 여부에 따른 입양관련 인식에서 영아입양의 경우가 연장아 입양에 비해 평균 점수가 조금 높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입양유형에 따라 유자녀가정 입양과

불임 입양집단의 입양관련 인식을 비교한 결과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른 입양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입양관련 인식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입양관련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변인 간 상관관계

입양 공개범위 및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과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

표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입양관련 인식의 차이

| 변인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t    |
|------------|--------|----|-------|------|
| 성별         | 남      | 35 | 14.14 | 3.27 |
|            | 여      | 60 | 14.15 | 4.07 |
| 학년         | 초등 저학년 | 57 | 14.22 | 3.82 |
|            | 초등 고학년 | 38 | 14.02 | 3.75 |
| 연장아 여부     | 영아 입양  | 71 | 14.34 | 3.63 |
|            | 연장아 입양 | 24 | 13.52 | 4.21 |
| 입양유형       | 유자녀    | 58 | 11.12 | 3.56 |
|            | 불임     | 37 | 12.43 | 3.14 |
| 다른 입양 형제유무 | 유      | 69 | 11.57 | 3.52 |
|            | 무      | 26 | 11.76 | 3.32 |

표 4. 입양 공개범위 및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과 입양관련 인식의 상관관계

| 변인                  | 1      | 2      | 3 |
|---------------------|--------|--------|---|
| 1. 입양관련 인식          | 1      |        |   |
| 2. 입양 공개범위          | .322** | 1      |   |
| 3. 입양관련 의사소통<br>개방성 | .270** | .279** | 1 |

\*\*  $p < .01$ 

해보면, 입양공개 범위( $r=.322$ ,  $p<.01$ ),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 $r=.270$ ,  $p<.01$ )이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토대로 입양관련 인식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4. 입양 공개범위 및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이 입양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입양 공개범위 및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이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독립변인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0.4이하로 나타났으며, VIF 값이 1과 2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양 공개범위( $\beta=.265$ ,  $p<.01$ ),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 $\beta=.205$ ,  $p<.05$ ) 순으로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2%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즉, 아동이 자

표 5. 입양 공개범위와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이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 변인            | B    | $\beta$ | t       |
|---------------|------|---------|---------|
| 입양 공개 범위      | .178 | .265    | 2.604** |
|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 | .040 | .205    | 2.015*  |

 $R^2=.142$   $AdjR^2=.123$   $F=7.471^{***}$ \*  $p < .05$ , \*\*  $p < .01$ , \*\*\*  $p < .001$ 

신의 입양사실을 주위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공개할수록, 평소 부모와 입양관련 대화를 더 많이 나눌수록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입양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을 파악하고, 관련 변인들을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 입양 공개범위,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을 중심으로 탐색해봄으로써, 국내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의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중단연구’에서 수집한 2010년 3차년도 조사 자료 중에서 학령기 입양아동 9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아동은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국내 입양아동들은 자신의 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입양될 때의 이야기

를 듣기 좋아하는 편이며, 다른 입양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나중에 크면 입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입양 관련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 간에 입양관련 인식에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입양의 의미와 그것이 암시하는 바에 대한 입양아동의 인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Brodzinsky 외(1984)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입양아동이 자신의 입양사실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연령의 증가와 반드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장아 입양이 영아입양에 비해 입양관련 인식 점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양유형에 따른 입양관련 인식은 불임에 의한 입양집단이 유자녀 입양보다 점수가 조금 높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입양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입양관련 인식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개인적 특성들에 대해 추후연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입양 공개범위와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은 입양아동의 인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중다회귀분석 결과, 입양 공개범위와 부모-자녀의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이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신의 입양사실을 주위

친구나 사람들에게 알리는 아동일수록 입양관련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입양사실의 공개가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들(Baran & Pannor, 1993; Chapman, et al., 1987)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이 자신의 입양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입양을 덜 거부적인 것으로 경험하고 자신이 두 가족과 연결된 상황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위 친구나 사람들에게 입양사실을 감추고 비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양사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이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입양과 관련된 주제를 입양부모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입양아동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Feast 와 Howe (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입양아동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동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인정하며,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입양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갖는 호기심을 지지하고, 친생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강화하며, 가족구성원들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입양과 관련된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아동의 노력을 지지하는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입양부모가 입양에 관련된 대화를 회피하거나 불편해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아동은 입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부모가 아동의 감정을 부

인하고 묻어두려 한다면, 그 가족은 청소년기에 그러한 감정이 격렬해질 때 그것들을 언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입양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방적이며 수용적인 환경이 형성될수록 아동은 심대로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 그의 부모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양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포함된 입양아동은 총 95명으로, 사례수가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여아가 남아에 비해 훨씬 많으며, 연령분포에서도 7세와 8세의 아동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공개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사단법인) 회원가족의 입양아동들을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체 국내 입양아동에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입양사실 공개범위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2점을 부여한 문항인 ‘과거에는 얘기했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은 동일선 상에서 등간척도로 간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가 .643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척도상의 문제가 연구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입양아동의 개인적 특성, 입양 공개범위 및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은 모두 3차년도에만 조사되었으므로, 변인들 간의 시간적 우선성을 확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종단연구를 지속해 나가면서, 이들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립하고자 시도해야 할 것이며, 후속연구를 통해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아동, 부모, 부모-아동 상호작용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는 입양아동이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입양관련 감정은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입양관련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입양아동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입양사실을 자아정체감에 어떻게 통합시키는지, 그 과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양사실에 대한 공개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비밀입양의 관행이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고, 혈연중심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뿌리 깊은 한국적 상황에서 입양사실의 공개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그 원칙적 논리와 상관없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입양사실 공개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동기 이후의 발달적 경과에 대한 후속연구들을 통해 추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2008). 입양아동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 *한국가족복지학*, 23, 71-102.
- 박미정 (2009).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인선 (1994).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미희, 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07). 입양아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1차년도 영유아발달과 자아개념, 인지발달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11(3), 449-469.
- 변미희, 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09). 국내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4), 261-279.
-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입양통계.
- 안재진 (2002). 우리나라 공개입양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홀트사회복지연구*, 2, 1-46.
-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09). 국내 입양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개입양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9, 187-219.
-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10). 공개입양가족의 입양 관련 의사소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43-171.
- 연진영, 김선애 (1991). 아동의 자기-지식의 발달. *아동학회지*, 12(2), 18-36.
- 이미션 (2002).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션 (2008). 입양과 관련된 심리적 이슈들에 대한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5(3), 49-65.
- 정옥분 (2011).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민혜 (2009).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선,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2008). 입양아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II: 1차년도 자료의 사회성발달과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12(2), 473-502.
- Baran, A., & Pannor, R. (1993). Perspectives on open adoption. *The Future of Children*, 11, 119-124.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Olson, D. H. et al.(Ed.),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pp.33-48).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rodzinsky, D. M. (2005). Reconceptualizing openness in adoption: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D. M. Brodzinsky & J. Palacios(Ed.), *Psychological issues in adoption: Research and practice* (pp.145-166). Westport, CT: Praeger.
- Brodzinsky, D. M., Schechter, M. D., & Henig, R. M. (1992). *Being adopted: The lifelong search for self*. New York: Doubleday.
- Brodzinsky, D. M., Singer, L. M., & Braff, A. M. (1984). Children's understanding of adoption.

- Child Development*, 55, 869-878.
- Brodzinsky, D. M., Smith, D. W., & Brodzinsky, A. B. (2004). 입양아동의 적응. 안재진(역). 홀트아동복지회. (원본발간일, 1998)
- Byrd, A. D. (1988). The case for confidential adoption. *Public Welfare*, 46, 20-23.
- Chapman, D., Dornor, P., Silber, K., & Winterberg, T. (1987). Meeting the needs of the adoption triangle through open adoption: The adopte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4, 78-91.
- Feast, J., & Howe, D. (2003). Talking and telling. In A. Douglas & T. Philpot (Ed.), *Adoption: Changing families, changing times* (pp.139- 146). London: Routledge.
- Grotevant, H. D., & McRoy, R. G. (1998). *Openness in adoption: Exploring family connections*. New York: Sage.
- Kadusín, A. (1980). *Child Welfare Services*. Macmillan, N. Y.
- Kraft, A., Palombo, J., Woods, P., Schmidt, A., & Tucker, N. (1985).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confidential adoptions. Part 3: The adopted child.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2, 139-153.
- Melina, L. R. (1998). *Raising adopted children*. Harper Perennial.
- Silber, K., & Dornor, P. M. (1990). *Children of open adoption*. San Antonio, TX: Corona.
- Slobodnik, N. J. (1996). *Communication about adoption, personality development and attachment in adoptive families*. Ph. D, Dissertation. Seton Hall University.
- Stein, L. M., & Hoopes, J. L. (1985). *Identity formation in the adopted adolescent*.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차 원고접수 : 2011. 9. 30

수정원고접수 : 2011. 11. 15

최종게재결정 : 2011. 12. 1

## A study on perceptions surrounding adoption by adopted children in Korea

Choi, Woon-Sun<sup>1)</sup>    Ahn, Jae-Jin<sup>2)</sup>    Byun, Mi-Hee<sup>3)</sup>    Kwon, Ji-Sung<sup>4)</sup>

<sup>1)</sup>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sup>2)</sup>Division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up>3)</sup>Dept. of Christian Welfare, Baekseok University

<sup>4)</sup>Dept. of Social Welfare,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erceptions of adoption by adopted children and the factors related to it, focusing on the children's characteristics(gender, grade, age at adoption placement), the level of adoption openness to their friends, and adoption-related communication. The data employed was taken from the third wave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adopted children, out of which, the answers of 95 school aged children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adopted children perceive the fact of their adoption in a relatively positive way. When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examined, the children's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not related to their perceptions surrounding adoption, but the level of adoption openness and adoption-related communication were foun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it. The regression analysis also indicated the same results. The higher the level of adoption openness of the children, the more positive their perceptions of adoption were and openness in adoption-related communication was related to more positive perceptions of adoption of school-age adopted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advanced with the aim of building more positive perceptions of adoption on the part of adopted children, and furthermore, to help adopted children's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need for follow-up studie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the perceptions of adoption, adopted children, adoption openness, adoption-related communication*